

‘깜짝 방문’ 최태원 “탄소감축 등 예정된 미래 철저히 준비”

〈SK그룹 회장〉

수행원 코로나 확진에 현장 불참 부스 둘러보지 못해 아쉬워 방문

SK바이오팜 의료기기 등 체험 대체우유로 만든 팔빙수 맛보고 기자들과 스탠딩 미팅도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전시관을 찾아 SK텔레콤의 도심항공교통(UAM) 시뮬레이터를 살펴보고 있다. /SK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CES 2023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 어느해 보다 ‘경기 변동과 상관없는 예정된 미래’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탄소감축과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이 CES 2023 현장에 ‘깜짝’ 방문했다. 최 회장은 CES 2023 개막날인 지난 5일(현지시간) 현장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접 수행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약속이 불발됐다. 이후 최 회장은 PCR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셀프 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

최 회장이 CES2023 현장을 방문했다. 예기치 못한 일로 SK부스를 둘러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CES 내 SK부스 뿐만 아니라 기업 부스 전반을 살펴 보고 관계사와 미팅을 할 계획이었지만 제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SK 그룹 부스만 짧게 관람했다.

최 회장은 부스에서 SK바이오팜이

선보인 뇌전증 발작 감지·예측 의료기기 5종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특히 그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글래스(제로 글래스)’를 써보기도 했다. 이 안경은 뇌파, 심박변이 등 복합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기록하고 전송할 수 있다.

SK바이오팜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최 회장의 만팔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수석매니저가 주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실제로 얼마나 팔렸냐”, “아직 상용화가 될 뻔했냐”고 물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상에 착수해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탄소 제로,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6개 구역을 둘러본 다음 야외 푸드 트럭으로 이동했다. 대체우유로 만든 팔빙수를 먹었다. 최 회장은 팔빙수를 먹으면서 한국 출시 시점, 정부의 인허가 프로세스, 방문객들의 관심이 많았는지 등을 잇달아 질문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스탠딩 미팅을 진행했다.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은 수행원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문에 “다행이 괜찮다. (어제) 셀프 격리에 들어가서 좀 미팅 했다”고 말했다.

CES 처음 참가 했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CES 처음 와서 보니 듣던대로 역시 규모가 크고 여러회사들의 새로운 기술들과 컨셉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CES 참가 소감에 대해 “CES 참가가 처음이다. 이번 SK부스 컨셉에 나름 아이디어를 냈다. 어떤 형태로 탄소감축을 할까 라는 고민이 많았다”라며 “이번 부스를 통해 잘 풀어준 것 같아서 기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기후 변화에 적극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몰라서 전망이나 예측 보다는 대응을 하고 있다. 돌아가는 시나리오 플랜에 따라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예정된 미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 취재 기자 vlna@metroseoul.co.kr

정기선 “무인선박 현실화가 성장동력”

〈HD현대 사장〉

한국조선해양, 美 ABS와 MOU 체결 내년까지 기관자동화시스템 등 실증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2023’에서 무인선박 현실화, 미래 트렌드 점검하는 등 성장동력 찾기에 분주했다.

HD현대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미국선급협회(이하 ABS)와 손잡고 사람의 도움 없이 항해는 물론 기관작동, 안전진단까지 가능한

‘무인 선박’ 현실화에 속도를 높인다.

한국조선해양은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가 개최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ABS와 자율운항 선박의 기관자동화, 통합안전관제시스템 개발과 실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HD현대 정기선 사장과 한국조선해양김성준 미래기술원장, 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ABS에서는 크리스토퍼 제이 위어니키 최고경영자, 패트릭 라이언 최고

기술경영자가 함께했다. ABS는 조선·해양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기 위해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 합성과 기준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선급협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2024년까지 기관자동화시스템(HiCBM)과 통합 안전관제시스템(HiCAMS)을 실제 선박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

기관자동화시스템과 통합안전관제시스템은 선박 내 엔진과 발전기 등 기계 장비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화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현대모비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HD현대

재와 같은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AI 기반 솔루션

이다.

김성준 한국조선해양원장은 “HD현대 자율운항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가장 앞서 가는데 있어 ABS와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미국의 보트 및 기자재 제조사인 브런즈윅과 세계 최대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 세계 1위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자, SK 부스를 돌아봤다.

브런즈윅은 레저보트 시장에서, 존디어와 캐터필러는 건설기계 시장에서 각각 세계 최고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 관련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HD현대 입장에서는 경쟁자다.

/양성운 기자 ysw@

Since 1996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창업안내

-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 무점포·무자본 창업
-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의류/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딜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만 여개의 인기 & 특가상품

30년 역사 핫티그룹

대한홍삼 [주] | 브레인TV (주) | 핫티라이프 (주) | 한삼장홍삼

문의: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CFE·미래산업 선도 다짐에 강한 확신 들어”

구자은 LS그룹 회장, 새 사업기회 모색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최신 기술을 둘러보며 새로운 미래를 고민했다.

8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6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라스베이거스 CES2023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구 회장과 함께 ㈜LS 명노현, LS전선 구본규, LS일렉트릭 김중우/권봉현, LS Mnm 도석구, LS엠트론 신재호, SPSX(슈퍼리어 에식스) 최창희 대표 등 주요 계열사 CEO 및 COO와 지난해 9월 그룹의 신사업 아이디어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리더인 'LS Futurist (미래 선도자)' 20여 명이 함께 동행했다.

구 회장과 주요 임직원들은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SK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선진 회사들의 전시관을 찾아,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전시장을 찾은 구 회장은 “이번 CES 전시회에 주요 기술 트렌드로 자리잡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넷 제로 등 미래 선진 기술들이 ‘모든 사물의 전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초 선언한 LS의 비전 2030, 즉 ‘CFE(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 산업을 선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G전자 CES 2023 전시관에서 ‘플러스핏’을 체험하고 있다.

도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우리의 다짐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계열사의 CEO들과 LS의 미래 사업을 이끌 Futurist 들이 글로벌 선진 기술들을 많이 접하고 해안을 얻어 그룹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동행한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밖에도 구 회장과 CEO들은 CES와는 별도로 테슬라, IDEO, IBM 양자컴퓨팅 연구소 등 글로벌 선진 기업들을 따로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한편, LS전선·LS일렉트릭·LS Mnm·LS엠트론 등 주요 계열사들의 북미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재용 기자 juk@